

시화호와 연체동물

제종길·신상호·임미정·최종인
(한국해양연구소/ 시화호지역 시민연대)

시화호는 1994년 시화간척사업의 물막이 공사로 생성된 호수로 과거 광활한 갯벌이 있던 곳이었다. 12.7km에 달하는 방조제는 시흥시와 안산시의 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 그리고 화성군을 연결하고 있으며, 옛 해안선은 내륙 쪽으로는 깊게 만입되어 있다. 간척사업을 통해 담수호로 만들려던 원 계획은 급속도로 약화된 호수의 수질 때문에 1997년에는 시화호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를 유통시켰다. 그러나 호수내의 수위를 해수면보다 1m 아래로 유지하는 탓에 넓은 간척지가 지난 육년간 노출되어 건조되었다.

시화호 주변 지역은 패총이 밀집된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패류의 채취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 현재 오이도에서 패총을 발굴하고 있으며, 굴, 백합, 피뿔고둥 등이 나타났으나 수적으로 굴이 단연 우세하였다. 시화호 지역은 패류의 집산지로 유명하였으며, 동족, 바지락, 가리맛조개은 전국 생산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백합은 종패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정도였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시화호 내의 음도 주변에 궁살이 있었을 정도로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맛도 뛰어났던 곳이었다.

이 곳 갯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생산되는 패류도 다양하다. 지역의 조간대와 조하대에서 발견된 연체동물은 모두 50종이 넘는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갯벌의 유용패류 대부분이 이 지역 갯벌에서 서식한다. 개랑조개, 떡조개, 맛, 동족, 가무락조개, 백합을 비롯하여 낙지, 주꾸미, 바지락, 키조개, 피조개, 굴, 벗굴, 피뿔고둥 등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화호가 생성된 이후 그 양은 현저히 줄었으며, 백합, 가무락조개는 자원이 거의 사라졌다.

시화호 간척지에서는 이전의 갯벌에 살았던 패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리맛조개는 음도 주변에서 백합과 가무락조개는 형도주변에서 그리고 동족은 여러 곳에서 대단위 개체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은 패각이 물에 밀려 0.5m 이상 쌓인 곳도 있다. 선감도 주변의 동족인 경우는 1㎡당 평균 150개체가 넘었다. 그리고 70cm가 넘는 굴이 발견되었으며, 약 1,5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화호의 환경과 연체동물에 대해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